남양주 봉영사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발족

"이웃 도와 자비실천 하는 것이 불자 사명"



경기도와 맺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일환으로 구성
지관 스님 "자리이타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 돌보길" 당부

봉영사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31명을 대표해 한 봉사단원이 '무한돌보미 자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자원봉사자로서 어려운 이웃의 고뇌를 덜어주고 행복을 베푸는 자비실천의 최일선에 서서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무한 사랑을 실천할 31명의 봉사자들이 보살행을 발원했다.

남양주 봉영사(주지 혜만)는 9월 26일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경기도 내 저소득민 돕기에 나섰다.

봉영사 신도들로 구성된 무한돌보미는 지난 7월 용주사(주지 정호), 봉선사(주지 인묵)와 경기도가 맺은 업무협약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봉영사 주지 혜만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 주변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무한돌보미'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과 함께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지금부터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차근히 있는 힘껏 밀고 나아가고자 한다. 각계 관계자들과 봉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봉행사에서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해 희망과 재활을 안겨주는 뜻 깊은 일"이라며 "교구 지역 내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더욱 좋을 것 같아 협약을 맺었다. 오늘을 좋은 출발로 삼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정부 지원 기준에 미달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주위에 많다. 이 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서 시 · 도 · 동 사무소나 주지스님, 종무소에 알리면 우리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앞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수계법회 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발대식에서 "내 씀씀이는 절약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하지 말되 이웃을 십시일반으로 돕자. 오늘 보살계를 받을 때의 마음인 자리이타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에 관심가지고 돌보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 및 무한돌봄 자원봉사 발대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제25교구 본 · 말사 스님들, 조계종 계단위원 무관 스님,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순희 무한돌보미 자원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31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봉영사 3000여 신도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 도 · 시청 및 교계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봉영사 (031)571-0555, 경기도 무한돌봄 콜센터 031-120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보살계 수계법회 및 자원봉사 발대식에는 지관 스님을 비롯해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 무관 스님,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위).

무한돌봄 자원봉사 단원이 위촉장을 전달 받은 뒤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 봉영사 주지 혜만 스님(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